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2021(143~162)

멕시코 IMMEX 프로그램과 마킬라도라 산업의 변화*

김학훈**

Mexico IMMEX Program and the Changes of Maquiladora Industry

Hak-Hoon Kim**

요약: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확대, 인구증가,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IMME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IMMEX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장비제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MEX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수와 해외매출액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IMMEX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티화나와 후아레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어: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국경도시, 쌍둥이 도시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progress of *maquiladora* industry in Mexico and the development of the IMMEX program. The *maquiladora* program allows foreign-invested factories in Mexico to import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duty free and to export the finished products to the U.S. I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employment and population of border cities. Low wage level of Mexico induced not only standardized labor-intensive industries but also the high-tech automated industries requiring assembly process. In 2006, the Mexican government merged the *maquiladora* program and PITEX for Mexican export-oriented firms into a single new program, the IMMEX program, in order to promote exports more efficiently. This study presents the distributions of the IMMEX firms by industrial sector and by region. It is revealed that transport equipment sector leads the export industries in Mexico, and Tijuana and Juárez accommodate largest agglomerations of the IMMEX firms.

Key Words : Mexico, maquiladora, IMMEX program, border city, twin city

* 이 논문은 2021-2022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eongju University, hkim@cju.ac.kr)

https://doi.org/10.23841/egsk.2021.24.2.143

1.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1세계에 속한 미국과 제3세계에 속한 멕시코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19세기에는 영토 문제로 전쟁을 치른 적도 있던 양국의 관계는 20세기 중반부터 외교뿐 아니라 교역에서도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국경지대는 양국 간의 물자이동과 인적 교류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 북부의 국경지대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것은 1965년 멕시코 정부가 '국경 산업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부터이다. 흔히 마킬라도라(maquiladora)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 공장을 세우고 무관세로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한 다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시행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량은 급증하였으며, 국경도시들의 인구도 급증하였다. 멕시코의 국경도시에 설치된 마킬라도라 공장들은 단순 노동직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멕시코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국경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멕시코에 진출하여 마킬라도라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미국 쪽의 국경도시에 관리본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미국 시장에 대한 원활한 제품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도시들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상호 교류를 통해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쌍둥이 도시(twin city)로 성장하게 된다.

1994년에 출범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마킬라도라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협정에 의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어 북미 3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 공장을 설립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마킬라도라 기업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NAFTA의 규정에 따라 2001년에는 마킬라도라 제품을 멕시코 내수시장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부터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PITEX)과 통합되어 IMMEX(수출 관련 제조업, 마킬라도라, 서비스 산업)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현재 약 3,000개로 추정되는 마킬라도라 공장의 대부분은 여러 국경도시들에 분포하고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양국 간의 경제적 공간분업, 국경지대를 통한 물자이동의 방법과 규모, 국경도시에 미치는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미국-멕시코의 국경 지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이전・백종국(1997), 김학훈(1998)이 있으며,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김학훈(1999), 김희순(2008), 문남권(2009), 임정훈(2013, 2017, 2019) 등이 있다. 기존 연구는 마킬라도라 산업의 시대적 변화 측면에서 2007년 이전의 일정 시점에 한정되어 있거나 2007년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시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IMMEX 프로그램 기업의 지리적 분포를 최신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5년부터 2006년까지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IMMEX 프로그램 기업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멕시코 INEGI(국립지리정보통계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2006년까지는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IMMEX 프로그램의 통계자료만 검색이 가능하다.

2)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쌍둥이 도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미국의 4개 주(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와 멕시코의 6개 주

(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ón, Tamaulipas)에 걸쳐있다(그림 1). 이 국경지대에는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인구증가율은 양 국가의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은 그 길이가 3,141km (1,952 mile)에 달하며, 양 국가는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쌍둥이 도시(twin city)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쌍둥이 도시란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입지한 양 국가의 도시들을 말하는데, 국경을 통한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양쪽에 도시를 형성하고 같이 발달하게 된다(김학훈, 1998, p.85). 이러한 미국–멕시코의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마킬라도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해지자 급성장하였다. 사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인구의 90% 이상은 총 14쌍의 쌍둥이 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표 1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위치한 쌍둥이 도시들의 인구변화를 보여준다. 쌍둥이 도시들 중에서도 샌디에고(San Diego)–티화나(Tijuana)에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엘파소(El Paso)–시우다드후아레스(Ciudad Juárez)에는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칼렉시코(Calexico)–멕시칼리(Mexicali)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여 세 번째로 큰 쌍둥이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양국 간 쌍둥이 도시들의 인구 규모를 비교해 보면 모두 멕시코 쪽의 인구가 미국 쪽보다 많으며, 칼렉시코–멕시칼리 쌍둥이 도시의 경우는 멕시코 쪽이 약 25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아도 미국 쪽보다는 멕시코 쪽 쌍둥이 도시들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특히 티화나의 인구는 1990년의 75만 명에서 2015년의 164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시우다드후아레스는 1990년의 80만 명에서 2015년의 13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쌍둥이 도시 중에서 미국의 샌디에고는 국경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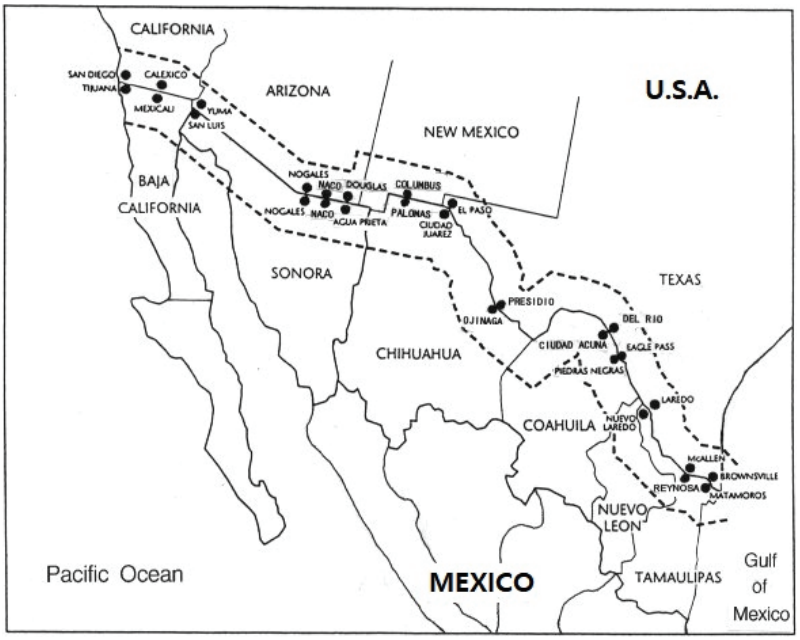

그림 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쌍둥이 국경도시들의 분포

주: 지도에 파선으로 표시된 지대는 1983년 미국과 멕시코 간에 체결된 '국경 지역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협정(La Paz Agreement)'에 명시된 국경지대로서, 양국의 국경으로부터 각각 100km 범위를 나타낸다.

출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1996, I.3.

거리가 약 20Km 떨어져 있지만 큰 해군기지가 입지하여 독자적으로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 멕시코 티화나는 도심이 국경에 거의 맞닿아 있으며 전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 샌디에고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멕시코의 티화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킬라도라 산업과 연계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샌디에고를 제외한 미국 쪽 쌍둥이 도시들은 멕시코 쪽 쌍둥이 도시들의 성장에 따라 동반 성장하고 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국경너머 미국 쪽 쌍둥이 도시에서 생활용품, 식품, 장난감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상가가 발달하며, 미국 국경도시에 멕시코 마킬라도라와 연관된 기업 시설들, 즉 쌍둥이 공장(twin plant)들이 들어서고 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때문이다(Pavlakovic and Kim, 1990). 또한 마킬라도라에 원자재나 부품을 수송하는 미국 측 운수업 고용도 확대되었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 너머로 찾아오는 멕시코인들이 많아지자 병원 시설과 고용도 확충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미국 국경도시들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쌍둥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월경통근자(cross-border commuter)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주거지와 직장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경우로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낮은 멕시코 쪽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멕시코인이 국경너머의 미국 땅에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직장이 있을 때 매일 국경을 넘어 통근하기도 하며, 반대로 마킬라도라 기업의 미국인 혹은 외국인 관리자들은 미국 쪽에 거주하며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직장으로 매일 월경통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영주권(소위 green card)을 가진 멕시코인 가족의 경우 주거비용이 싼 멕시코 국경도시에 거주하면서 미국 국경도시에서 일을 하거나 자녀들을 미국 쪽 학교에 통학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

표 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쌍둥이 도시들의 인구변화(1990-2019)

미 국				멕 시 코					
1990	2019	주명	도시명	도시명	주명	1990	2000	2010	2015
1,110,549	1,423,852	CA	San Diego	Tijuana	BC	747,381	1,210,820	1,559,683	1,641,570
19,000	40,121	CA	Calexico	Mexicali	BC	601,938	764,602	936,826	988,417
55,000	98,296	AZ	Yuma	San Luis R.C.	SN	110,530	145,006	178,380	192,739
19,500	20,201	AZ	Nogales	Nogales	SN	107,936	159,787	220,292	233,952
13,000	16,193	AZ	Douglas	Agua Prieta	SN	39,120	61,944	79,138	82,918
700	931	AZ	Naco	Naco	SN	4,645	5,370	6,401	6,160
640	1,617	NM	Columbus	Puerto Palomas	CH	3,707	5,210	4,688	-
515,300	681,729	TX	El Paso	Cd. Juárez	CH	798,499	1,218,817	1,332,131	1,391,180
3,000	4,019	TX	Presidio	Ojinaga	CH	23,910	24,307	26,304	28,040
30,700	35,846	TX	Del Rio	Cd. Acuña	CO	56,336	110,487	136,755	147,809
20,650	29,348	TX	Eagle Pass	Piedras Negras	CO	98,185	128,130	152,806	163,595
133,000	264,069	TX	Laredo	Nuevo Laredo	TM	219,468	310,915	384,033	399,431
84,000	143,258	TX	McAllen	Reynosa	TM	282,667	420,463	608,891	646,202
99,000	182,781	TX	Brownsville	Matamoros	TM	303,293	418,141	489,193	520,367

주: CA: California, AZ: Arizona, NM: New Mexico, TX: Texas, BC: Baja California, SN: Sonora, CH: Chihuahua, CO: Coahuila, NL: Nuevo León, TM: Tamaulipas, Cd.: Ciudad (City)

자료: 1990 U.S. Population Census; 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Mexico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Geografia, e Informatica).

국경을 통과할 때 제시하는 것은 국경통과증(소위 white card)이다. 이것은 마킬라도라에서 일을 하거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멕시코인에게 미국 이민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국경에서 25 mile(40km) 범위 내에서 최대 72시간(3일)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Herzog, 1990, pp.156-157).

2.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

1) 마킬라도라 산업의 발생과 특성

1965년 멕시코 정부가 북부 국경지대에 대한 민간주도형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경 산업화 프로그램(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흔히 마킬라도라 프로그램(maquiladora program)이라 부른다. 여기서 마킬라도라는 원료, 부품 및 장비를 면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한 다음 그 중간재 및 최종생산물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의 공장들을 의미한다(Blouet and Blouet, 1993, p.265). 마킬라도라는 줄여서 마킬라(maquila)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래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아주고 대가로 받는 방앗간 삯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보세가공 공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방앗간 삯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멕시코에서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 시행된 배경에는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이 있다. 브라세로는 일용 노동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인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청년들이 징병되어 일손이 부족해진 미국의 남부 및 남서부 농장에서 수확기에 멕시코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 것이 브라세로 프로그램이다. 1942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미국 농장의 필요에 의해서 20년을 더 지속하였는데, 결국 미국의 교회, 노동조합, 농장노동자 등의 반대 압력에 의해 1964년에 끝나게 된다. 이때는 미국의 농업이 이미 기계화에 의해 저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었다(Krooth, 1995, p.278). 이렇게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미국 쪽에는 멕시코인 불법노동자의 문제가 발생했고, 멕시코 쪽에는 실업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멕시코 정부에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1965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 및 국제수지 개선과 북부 국경지대의 공업화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국경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한해 재수출을 전제로 조립가공용 설비, 재료, 기계, 부품의 면세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을 멕시코의 저임 노동력과 결합하여 조립방식의 생산활동을 통해 수출하는 보세가공 무역인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484). 결국, 외국의 본사에서 마킬라도라에 파견된 외국인들은 관리직과 고급기술직을 담당하고 멕시코인들은 대부분 단순노동직에 종사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된 원료 및 부품이 최종생산물이 되어 다시 미국으로 수입될 때 부가가치에 대한 관세만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마킬라도라 기업의 운영방식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는 외국 투자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subsidiary) 또는 분공장(branch plant)에 의한 직영으로서 효과적인 조업활동과 경영통제가 가능하다. 둘째는 멕시코에 소재한 임가공(賃加工) 기업(shelter company)[1]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외국 투자기업은 원료, 부품, 장비를 제공하고 생산을 관장할 요원을 상주시킨다. 셋째는 생산과정을 전담할 멕시코의 회사와 하청계약(subcontracting)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외국 투자기업은 원료, 부품, 장비를 제공하지만 관리 요원을 상주시키지는 않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487-489).

마킬라도라 산업이 멕시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멕시

코 전체 수출액의 55.7%를 마킬라도라 산업이 담당했다(멕시코 중앙은행). 멕시코 전체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킬라도라 산업에서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마킬라도라 산업이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미국(혹은 외국)의 모기업은 마킬라도라에 필요한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고, 조립된 제품은 대체로 모기업으로 운송되어 최종적인 공정을 거치거나 바로 분배되어 나간다. 마킬라도라의 입지에 있어서, 미국 내 모공장(parent plant),[2] 물류센터(distribution center) 또는 시장(market)에의 근접성은 중요한 요인이다. 1986년도 자료에 의하면 티화나 소재 마킬라도라 업체의 80%가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 모공장이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rzog, 1990, p.167). 이러한 마킬라도라의 전방연계 패턴은 대체로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한 입지가 고려된 것이다. 반면에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위치한 마킬라도라들의 상당수가 미국 북동부의 공업지대(manufacturing belt)와 전방연계 되어있다는 사실은 마킬라도라의 입지분석에 제품수명주기 이론의 성숙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outh, 1990, pp.564-565).

2)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표 2 및 표 3과 같다(그림 2 참조).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 시작한 1965년에는 12개의 공장에서 약 3,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했으나, 2006년에는 2,810개의 마킬라도라 공장에 약 12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마킬라도라 기업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70년대 초에는 기업당 종사자수가 1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428명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정부의 산업정책은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멕시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지역과 생산품의 국내 판매 등을 규제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완화하였다. 즉 1972년부터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국경지대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1983년에는 마킬라도라 생산품의 20%를 국내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89년에는 마킬라도라 생산품의 50%까지 내수 판매를 허용하고, 마킬라도라 이외의 내수 기업에도 외국인의 100%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1994년에 발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은 다국적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촉진하였고, 차츰 마킬라도라 제품의 내수 판매 제한도 없애게 되었다.

표 2.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1965-1989)

연 도	기업 수	종사자수	기업당 종사자수
1965	12	3,000	250
1966	57	4,257	75
1967	72	17,936	249
1968	79	17,000	215
1969	108	15,858	147
1970	120	20,327	169
1971	251	29,214	116
1972	339	48,060	142
1973	370	51,184	138
1974	455	75,974	167
1975	454	67,214	148
1976	448	74,496	166
1977	443	78,433	177
1978	457	90,704	198
1979	540	111,365	206
1980	620	119,546	193
1981	605	130,973	216
1982	585	127,048	217
1983	600	150,867	251
1984	672	199,684	297
1985	760	211,968	279
1986	891	249,833	280
1987	1,125	305,253	271
1988	1,396	369,489	265
1989	1,467	418,533	285

자료: 1965-1988년 자료: South (1990, p.550);
1989년 자료: Mexico INEGI (1994).

표 3.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1990–2006)

연 도	기업 수	종사자수	기업당 종사자수	북부 6개 접경주*	
				종사자수	전국 대비 비율(%)
1990	1,703	446,436	262	421,639	94.4
1991	1,914	467,352	244	431,900	92.4
1992	2,075	505,698	244	462,944	91.5
1993	2,114	542,074	256	488,452	90.1
1994	2,085	583,044	280	524,371	89.9
1995	2,130	648,263	304	572,776	88.4
1996	2,411	753,708	313	651,344	86.4
1997	2,717	903,528	333	769,113	85.1
1998	2,983	1,014,006	340	851,732	84.0
1999	3,297	1,143,240	347	942,978	82.5
2000	3,590	1,291,232	360	1,067,123	82.6
2001	3,630	1,198,942	330	987,623	82.4
2002	3,003	1,071,209	357	880,604	82.2
2003	2,860	1,062,105	371	871,783	82.1
2004	2,810	1,115,230	397	923,725	82.8
2005	2,816	1,166,250	414	958,810	82.2
2006	2,810	1,202,134	428	1,002,154	83.4

주: * 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on, Tamaulipas
자료: 1990-1992년 자료: Mexico INEGI (1994); 1993-1995년 자료: Mexico INEGI (1997); 1996-1999년 자료: Mexico INEGI (2001); 2000-2006년 자료: Mexico INEGI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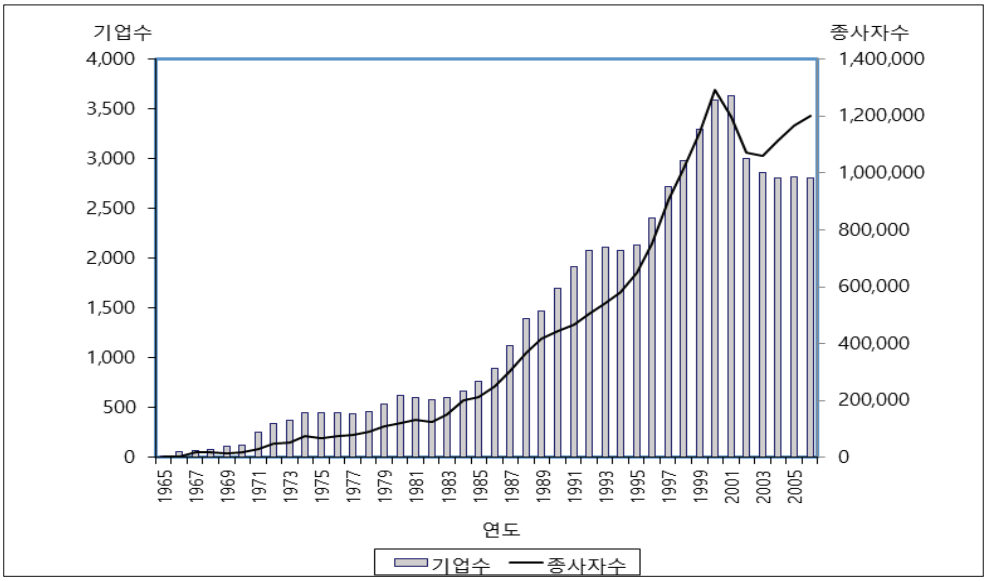

그림 2. 마킬라도라 기업과 종사자 수의 증감
자료: 표 2 및 표 3의 자료와 동일.

마킬라도라 기업들은 미국 국경과 접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 6개 접경주에 여전히 많은 수가 몰려있다. 이는 마킬라도라 산업의 입지에서 미국과의 근접성이 운송비 절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의 마킬라도라의 내수 판매 허용 정책은 마킬라도라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멕시코 내륙에 입지하는 마킬라도라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3을 보면 6개 접경주에 입지한 마킬라도라의 비중은 1990년의 94.4%에서 2006년의 8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멕시코 화폐인 페소(peso)의 평가절하는 마킬라도라 기업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페소가 평가절하 되면 멕시코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마킬라도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매력적이 된다. 실제로 과거 3차례(1976년, 1982년, 1994년)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마킬라도라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표 2와 표 3에서 페소화가 평가절하된 연도 전후의 마킬라도라 기업 수를 살펴보면, 평가절하 직전 연도에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마킬라도라 업체 수가 감소하다가 평가절하 후에 급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멕시코 정부의 산업정책과 환율정책은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 2와 표 3의 자료를 그래프로 작성한 그림 2를 보면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 추세를 5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Carrillo, 1989; Kopinak, 1996, pp.9-18에서 재인용).

제 1단계는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으로서 마킬라도라의 설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마킬라도라는 경공업 제품을 조립하는 노동집약적 공장이 대부분이었다. 기업들은 브라세로 보다는 바깥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젊은 여성들을 더 선호하여, 단순노동력의 90% 이상을 여성인력이 차지했다. 이것은 수출가공산업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면서 섬세한 여성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미 초창기에 제정된 몇 가지 규제조치가 완화되었다. 즉, 1972년부터는 마킬라도라 시행지역이 이미 공업화된 지역을 제외한 멕시코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1973년에는 멕시코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법령의 적용을 섬유 및 의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마킬라도라에 대해서 면제시켜줌으로써 외국인이 마킬라도라의 100%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단계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이다. 먼저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미국의 경제 불황에 따른 마킬라도라의 침체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마킬라도라에 대해 연방노동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줌으로 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마킬라도라는 임시직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금도 없이 임의로 해고할 수도 있었으며, 신입 노동자의 견습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그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악화는 마킬라도라에 대해 비판할 때 자주 제시되는 역사적인 증거로 남게 되었다. 1977년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마킬라도라의 성장도 빨라지기 시작한다. 이때 멕시코 정부의 정책은 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로 전환해 가고 있었으며, 마킬라도라는 고용확대와 외화획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1976년 단행한 멕시코 화폐인 페소(peso)화의 평가절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 3단계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이다. 1982년 당시 외환위기에 빠져있던 멕시코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개방경제화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페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국경지대의 안정적 개발을 위해 마킬라도라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서 영속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즉, 자본집약적인 마킬라도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용 부품을 만드는 마킬라도라에 최우선적 배려를 했다. 1983년부터는 마킬라도라에서 전년도에 수출한 물량의 20% 범위내의 생산품을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것도 1989년에는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외환위기

로 침체에 빠졌던 마킬라도라 산업이 다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4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마킬라도라 기업 수가 급증한 기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89년에 혁신적인 법령을 공포하면서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통신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서 과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했던 법령을 철폐하여 마킬라도라가 아닌 기업이더라도 외국인의 100%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유럽, 일본,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킬라도라가 아닌 멕시코인 기업들도 내수용보다 적은 물량이라면 마킬라도라와 같은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마킬라도라의 경우는 전년도 수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부터는 이렇게 보세가공 수출과 국내 판매용 생산을 함께 하는 기업(소위 part-time maquiladora)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마킬라도라 기업과 비마킬라도라 기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된 NAFTA가 발효되면서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킬라도라를 선택한 다국적기업들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NAFTA의 규정에 의하여 마킬라도라 생산제품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이 1989년에 개정된 50%에서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01년에는 100%를 허용함으로써 마킬라도라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 제한도 사라지게 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485).

제 5단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침체기로서,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어 마킬라도라의 수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중국이 2001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는 대미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혜택과 미국과의 접근성을 누리는 마킬라도라와 경쟁할 정도가 되어 일부 마킬라도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멕시코보다 노동비가 저렴한 다른 아시아 국가나 중앙아메리카 국가로 이전한 마킬라도라 기업들도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800여개 마킬라도라 기업이 문을 닫은 반면, 마킬라도라 종사자수는 2001년부터 급감하다가 마킬라도라 기업이 대형화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IMMEX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멕시코 정부에서는 마킬라도라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마킬라도라 기업 제도는 존속하고 있다.

3. IMMEX 프로그램

1) IMMEX 프로그램의 도입과 발전

2006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킬라도라 프로그램과 멕시코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PITEX[3]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IMMEX[4]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PITEX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하는 멕시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에는 3,620개 기업이 참여했다. 2006년 당시 PITEX 기업들의 65%는 멕시코 내륙에 입지했으며, 35%는 북부 접경주에 입지하였다(Pavlakovich-Kochi, 2015). PITEX 프로그램에는 멕시코의 모든 자동차 조립공장과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납품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6년 당시 마킬라도라 기업의 수는 2,810개이며, 북부 접경주에 입지한 종사자수의 비율은 83.4%에 달하여 PITEX 기업 분포와 대조적이다. 2006년 당시 마킬라도라와 PITEX 기업들은 멕시코 전체 제조업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과 PITEX를 통합한 이유는 NAFTA 이후 마킬라도라 기업도 무제한으로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PITEX 기업과 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인데, 멕시코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수출을 담당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IMMEX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다. 즉 IMMEX 프로그

램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Angulo, 2013).

2006년 IMMEX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마킬라도라에 대한 통계는 IMMEX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집계되고 있다. IMMEX 프로그램은 제조업 분야와 비제조업 분야(농업, 광업, 서비스업)로 나누어지는데, 2020년 12월 기준 제조업 분야는 5,161개 기업에서 2,690,635명을 고용하였으며, 비제조업 분야는 1,268개 기업에서 338,196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IMMEX 전체 6,429개 기업 중 제조업체가 약 80.3%를 차지하고, IMMEX 전체 고용 3,028,831명 중 88.8%가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IMMEX 기업들은 멕시코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멕시코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Angulo, 2016).

IMMEX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임정훈, 2019, p.29). 첫째, IMMEX 프로그램은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하도록 허용하여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 임시수입 허용 기간은 일반 부품, 소재의 경우 18개월이고, 일부 특수 품목은 6-12개월이다. 기계와 장비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IMMEX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한 계속 허용이 된다. 둘째, 이러한 IMMEX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수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연간 50만 US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수혜 대상 기업은 수출용 상품의 제조 공정에 관련된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및 수출 관련 농업, 광업 기업체까지 포함된다. 셋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부품, 소재를 투입한 제품을 자유무역협정 지역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부품, 소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수입 허용 기간을 지나도 수출품에 투입되지 않은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수입 허용된 부품, 소재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 시장에 판매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안정진, 2014b; 조혜연, 2011).

부품과 소재를 NAFTA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의 경우 2001년부터 적용된 NAFTA 규정에 의해 수입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멕시코정부는 PROSEC[5]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킬라도라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PROSEC에서 지정하는 22개 산업부문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된 부품, 소재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0~5%의 특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PROSEC 혜택은 제품을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한현희・김윤희, 2007). IMMEX 프로그램에 가입된 기업들은 동시에 PROSEC 프로그램에도 가입하여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표 4는 IMMEX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그림 3 참조). 비제조업체는 2009년부터 IMMEX 프로그램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2007년과 2008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7년 이래 최근까지 제조업체는 5,000~5,200개 업체가 유지되고 있으며, 비제조업체는 1,000개~1,200개 업체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종사자수는 2019년도 제조업체 고용이 한때 감소한 적이 있지만 2009년 이후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IMMEX 업체당 종사자수가 2009년의 300명에서 2020년의 471명으로 증가하여 업체가 대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조업체수가 2011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증가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종사자수의 경우 2009년까지는 제조업체수와 마찬가지로 급감하였지만, 201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제조업체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업체수는 감소했지만, 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IMMEX 프로그램에서는 마킬라도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

표 4. IMMEX 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2007–2020)

연 도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전체 IMMEX 기업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
2007	5,140	1,902,121	-	-	5,140	1,902,121	370
2008	5,254	1,738,182	-	-	5,254	1,738,182	331
2009	5,214	1,645,291	979	214,571	6,193	1,859,862	300
2010	5,108	1,810,482	1090	236,082	6,198	2,046,564	330
2011	5,079	1,879,114	1103	242,295	6,182	2,121,409	343
2012	5,104	1,991,760	1,148	262,004	6,252	2,253,764	360
2013	5,142	2,116,022	1,214	278,331	6,356	2,394,353	377
2014	5,020	2,256,652	1,126	288,171	6,146	2,544,823	414
2015	5,006	2,357,556	1,089	286,363	6,095	2,643,919	434
2016	5,018	2,479,127	1,074	288,790	6,092	2,767,917	454
2017	5,089	2,581,487	1,068	301,274	6,157	2,882,761	468
2018	5,115	2,695,592	1,073	320,599	6,188	3,016,191	487
2019	5,144	2,678,633	1,195	340,095	6,339	3,018,728	476
2020	5,161	2,690,635	1,268	338,196	6,429	3,028,831	471

자료: Mexico INEGI, 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IMMEX), 각 연도 12월 제조업체 및 비제조업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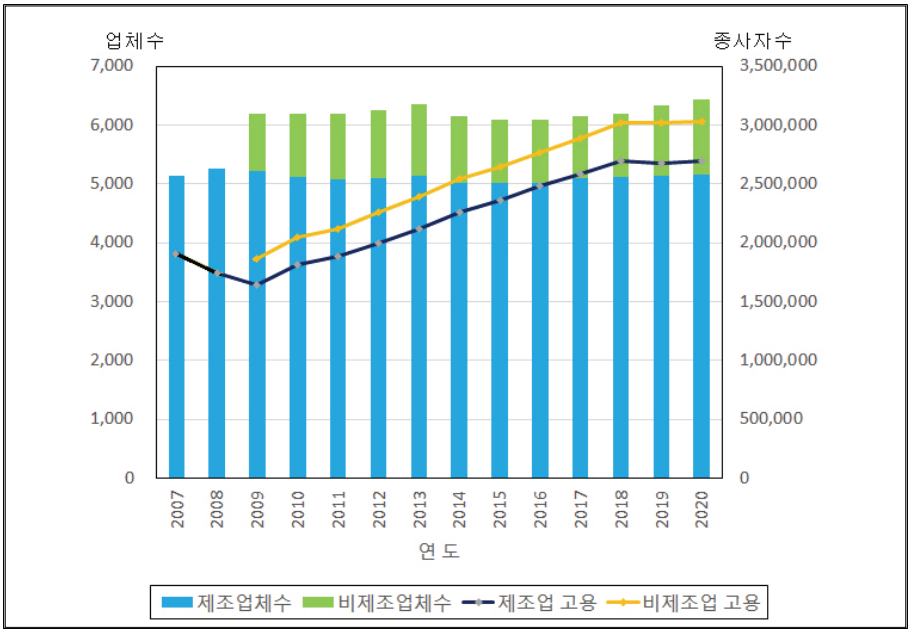

그림 3. IMMEX 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2007–2020)

자료: 표 4의 자료와 동일.

한 마킬라도라 기업 수의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IMMEX 프로그램의 제조업체 수를 보면 대략 5,1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통계에 나타난 2,810개 정도의 마킬라도라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IMMEX 제조업체당 종사자수는 2007년의 370명에서 2020년의 521명으로 급증하였고, 2006년 마킬라도라 업체당 종사자수가 42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표 3 참조), 기업의 대형화에 따라 고용은 급증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1년의 9・11 테러의 여파로 침체에 빠지고 중국의 저임금을 내세운 기업 유치에 타격을 입은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은 2008년의 금융위기로 또 다른 위기에 빠졌지만 2010년대부터 고용증가와 함께 매출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과 멕시코의 임금 격차가 크게 좁혀져서 중국으로 이전했던 마킬라도라 공장이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6]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임정훈, 2019, p.35).

2) IMMEX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

IMMEX 프로그램의 제조업은 자동차, 항공기 등과 관련된 운송장비 제조업이 선도를 하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업종별 IMMEX 제조업체 분포를 보면, 2020년 12월 현재 운송장비 제조업체는 1,095개로서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이르며, 종사자수의 비중은 무려 35.3%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07년의 제조업체 비중 14.1%과 종사자수 비중 26.2%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해외매출액에서는 IMMEX 제조업 전체의 54%가 넘는 비중을 운송장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Mexico INEGI, 2020).

멕시코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서, 미국의 Big 3 자동차 회사인 GM (General Motors, 1982년 진출), Chrysler(1982년), Ford(1983년)와 독일의 VolksWagen(1982년), Mercedes-Benz(1993년), BMW (1995년), 일본의 Nissan(1983년), Honda(1995년) 등 총 22개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생산 공장이 진출해 있다(Pavlakovich-Kochi, 2017). 생산된 자동차는 수출용과 멕시코 내수용으로 나뉘어 판매되는데, 수출용은 대부분 미국시장으로 판매되며, Nissan 자동차는 남미시장, VolksWagen 자동차는 유럽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하청 부품업체들을 통한 산업간 연계효과가 크고 고용효과도 높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멕시코정부는 외국의 자동차회사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마킬라도라 기업들인 자동차 조립공장에서는 멕시코 내의 하청부품업체보다도 미국 등지에서 생산한 부품에 더 의존하고 있어서 국지적 연계효과가 의도한 만큼 높지는 못하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매출은 더 증가했다(Mexico INEGI, 2020). 이것은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멕시코의 낮은 임금수준과 미국 시장에의 접근성을 중시하여 멕시코에 공장 신설 등 투자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으며, 많은 해외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자동차 회사와 함께 멕시코에 동반 진출하였다(박민경, 2016). 또한 NAFTA에 의한 관세 혜택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에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안정진, 2014a).

고용에 있어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컴퓨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으로서 12.7%를 차지하였다. 컴퓨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의 비중은 7.4%인 것을 보면 이 업체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으로 단순조립작업을 하는 대규모 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 수의 비중으로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이 각각 10%를 상회하는데, 이러한 산업은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운송장비 제조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산업들이다.

멕시코의 전자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

표 5. IMMEX 업종별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

산업분류	업체수				종사자수			
	2007년	%	2020년	%	2007년	%	2020년	%
식품가공업	336	6.5	247	4.8	114,472	6.0	123,084	4.6
음료・담배제조업	70	1.4	86	1.7	29,878	1.6	35,117	1.3
섬유제조업	131	2.5	74	1.4	38,239	2.0	30,070	1.1
직물제조업	88	1.7	54	1.0	13,495	0.7	12,619	0.5
의류제조업	516	10.0	287	5.6	138,380	7.3	77,943	2.9
가죽제품제조업	92	1.8	92	1.8	17,412	0.9	22,785	0.8
목재제조업	70	1.4	58	1.1	7,860	0.4	8,619	0.3
제지업	95	1.8	135	2.6	18,882	1.0	38,411	1.4
인쇄출판업	62	1.2	72	1.4	10,105	0.5	12,771	0.5
화학공업	204	4.0	218	4.2	50,281	2.6	60,414	2.2
플라스틱・고무제조업	493	9.6	592	11.5	102,783	5.4	180,863	6.7
비금속광물가공업	178	3.5	123	2.4	45,633	2.4	50,960	1.9
기초금속제조업	176	3.4	198	3.8	54,841	2.9	77,445	2.9
금속가공업	473	9.2	525	10.2	87,797	4.6	146,494	5.4
기계장비제조업	215	4.2	240	4.7	62,554	3.3	98,213	3.7
컴퓨터・전자통신장비 제조업	406	7.9	381	7.4	294,649	15.5	341,822	12.7
전기제품제조업	314	6.1	274	5.3	156,968	8.3	181,732	6.8
운송장비제조업	723	14.1	1,095	21.2	498,714	26.2	948,464	35.3
가구제조업	177	3.4	132	2.6	29,647	1.6	36,626	1.4
기타 제조업	321	6.2	278	5.4	129,531	6.8	206,183	7.7
전국 합계	5,140	100.0	5,161	100.0	1,902,121	100.0	2,690,635	100.0

자료: Mexico INEGI. 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IMMEX), 각 연도 12월 제조업체 통계.

(예: IBM, GE, Whirlpool, Kodak)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멕시코 기업들은 낙후한 기술수준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전략에 따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형 전자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기술혁신적인 부품의 생산보다는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의 생산이나 완제품의 단순조립기지가 되고 있다. 완제품 조립에 필요한 부품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마킬라도라 부품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전원 공급장치나 변압기 코일같이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형 부품이 대부분이다. 컴퓨터 및 통신기기 분야는 멕시코가 아직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입품과 외국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분야는 현재 10여개의 멕시코 회사가 주로 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내수용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423-430).

반면에 2007년과 2020년 사이에 제조업체수의 감소뿐 아니라 종사자수의 절대 감소를 보인 업종은 섬유제조업, 직물제조업, 의류제조업이다. 특히 의류제조업은 종사자수가 약 44%(60,437명) 감소하였다.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 분야는 중국, 베트남, 인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의 마킬라도라 등과 인건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업체수 및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IMMEX 프로그램의 비제조업분야는 2020년의 경우 업체수에서는 농업, 창고업, 사업서비스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수에서는 농업이 선도하고 있

표 6. IMMEX 업종별 비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

산업분류	업체수				종사자수			
	2009년	%	2020년	%	2009년	%	2020년	%
농업	256	26.1	226	17.8	123996	57.8	136604	40.4
광업	52	5.3	52	4.1	27979	13.0	41520	12.3
농림산물 유통업	24	2.5	135	10.6	531	0.2	5388	1.6
창고업	15	1.5	231	18.2	219	0.1	14330	4.2
사업서비스업	345	35.2	230	18.1	25711	12.0	46050	13.6
폐기물처리업	131	13.4	118	9.3	4646	2.2	6979	2.1
기타 비제조업	156	15.9	276	21.8	31489	14.7	60325	17.8
전국 합계	979	100.0	1268	100.0	214571	100.0	338196	100.0

자료: Mexico INEGI. 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IMMEX), 각 연도 12월 비제조업체 통계.

다. 표 6에서 보면 농업부문의 업체수는 2009년의 256개에서 2020년의 226개로 감소했지만, 종사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2020년에도 전체 비제조업 고용의 4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농산물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매출액에서는 IMMEX 비제조업 전체의 27%를 농업이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Mexico INEGI, 2020). 농림산물 유통업과 창고업의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종사자수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3) IMMEX 기업들의 지역별 분포

멕시코 IMMEX 기업들의 주별 분포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이 그래프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분야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IMMEX 기업체의 주별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IMMEX 기업을 많이 보유한 상위 5개 주들은 모두 미국과의 접경주이다. 가장 많은 IMMEX 기업을 보유한 주는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로서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 접경주 중에서 소노라(Sonora)주는 8번째 순위로서 5.7%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전체의 IMMEX 업체수에서 북부 6개 접경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에 이르며, 이를 IMMEX 기업 종사자수로 환산해 보면 북부 6개 주는 60.3%를 차지하게 된다(Mexico INEGI, 2020). 이 수치는 표 3에서 2006년도 마킬라도라 종사자의 83.4%가 6개 접경주에 분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비율이지만, IMMEX 프로그램이 마킬라도라를 포함하여 미국 시장과 연관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수입 및 제품 수출용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국과 근접한 접경주에 입지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멕시코 IMMEX 기업 종사자들의 주별 분포를 지도화한 그림 5에서도 북부 접경주에 집중된 패턴이 나타난다. 이 지도는 2020년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멕시코 IMMEX 기업(제조업과 비제조업) 종사자의 주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IMMEX 종사자들의 분포에 있어서 북부 6개 접경주들이 내륙 주들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멕시코 북부 6개 접경주에 입지한 IMMEX 제조업체들의 주(*estado*) 및 군(*municipio*)[7]별 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해서 2007년과 2021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IMMEX 제조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종사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7에서 같은 기간 동안 북부 6개 접경주에 대한 분포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체수의 경우 2007년의 60.7%에서 2021년의 59.2%로 약간 감소했지만,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61.8%에서 62.3%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IMMEX 제조업체의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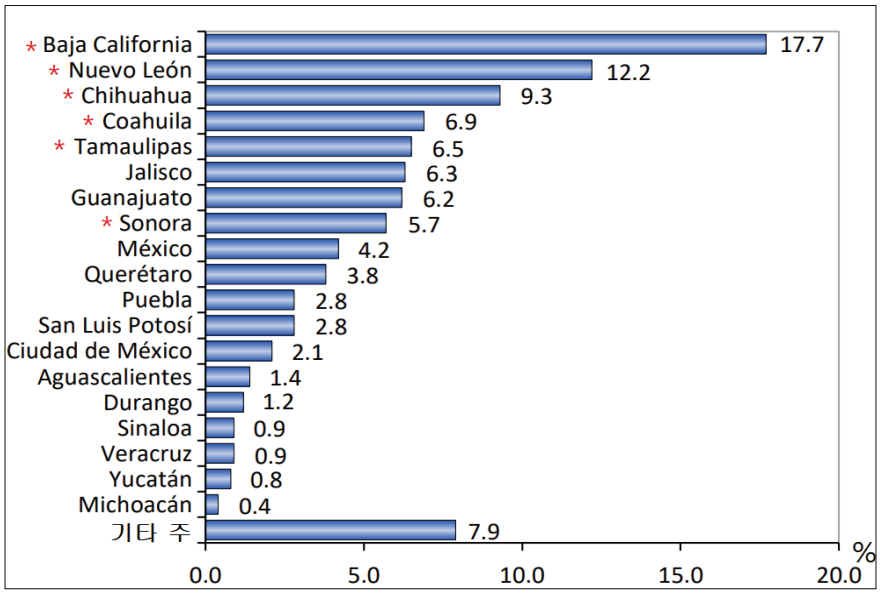

그림 4. 멕시코 IMMEX 기업체의 주별 분포 비율(2020년)

주: * 표시는 멕시코 북부 6개 접경주를 나타낸다.

출처: Mexico INEGI. Indicadores de Establecimientos Con Programa IMMEX,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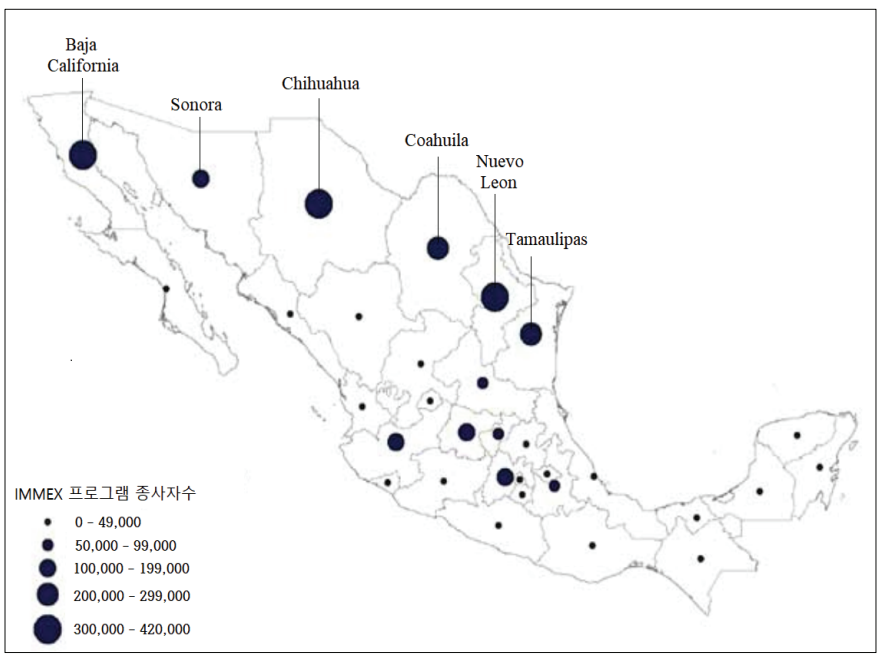

그림 5. 멕시코 IMMEX 기업 종사자의 주별 분포도(2020년)

자료: Mexico INEGI. Indicadores de Establecimientos Con Programa IMMEX, 2020년 12월.

분포 비율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북부 6개 접경주 중에서 IMMEX 제조업체수가 가장 많은 주는 그림 4에서 본 것처럼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로서 1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수로는 치와와(Chihuaha)가 가장 많은 1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municipio*별 분포에 있어서는 바하캘리포니아주의 티화나(Tijuana)

표 7. 북부 접경 6개주 IMMEX 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

주/군 행정구역 (estado/municipio)	업체수				종사자수			
	2007년	%	2021년	%	2007년	%	2021년	%
BAJA CALIFORNIA	**1,014**	**19.7**	**929**	**17.9**	**250,864**	**13.2**	**365,120**	**13.3**
Ensenada	103	2.0	84	1.6	15,027	0.8	21,666	0.8
Mexicali	165	3.2	141	2.7	55,834	2.9	72,986	2.7
Tecate	130	2.5	101	1.9	11,503	0.6	12,697	0.5
Tijuana*	616	12.0	603	11.6	168,500	8.9	257,771	9.4
COAHUILA	**371**	**7.2**	**393**	**7.6**	**162,084**	**8.5**	**259,765**	**9.5**
Acuña	45	0.9	50	1.0	24,053	1.3	34,199	1.2
Ramos Arizpe	72	1.4	99	1.9	28,906	1.5	59,087	2.2
Saltillo	57	1.1	73	1.4	23,654	1.2	41,585	1.5
Torreón	68	1.3	47	0.9	31,351	1.6	36,835	1.3
기타 지역	129	2.5	124	2.4	54,120	2.8	88,059	3.2
CHIHUAHUA	**474**	**9.2**	**490**	**9.4**	**285,706**	**15.0**	**410,093**	**14.9**
Chihuahua	84	1.6	109	2.1	46,232	2.4	73,579	2.7
Juárez	325	6.3	327	6.3	210,362	11.1	301,314	11.0
기타 지역	65	1.3	54	1.0	29,112	1.5	35,200	1.3
NUEVO LEÓN	**600**	**11.7**	**667**	**12.8**	**194,328**	**10.2**	**294,716**	**10.7**
Apodaca	170	3.3	204	3.9	63,896	3.4	87,923	3.2
Guadalupe	73	1.4	94	1.8	20,071	1.1	37,969	1.4
Monterrey	80	1.6	49	0.9	22,586	1.2	15,868	0.6
San Nicolás de los Garza	53	1.0	55	1.1	19,525	1.0	25,630	0.9
Santa Catarina	64	1.2	66	1.3	15,575	0.8	26,243	1.0
기타 지역	160	3.1	199	3.8	52,675	2.8	101,083	3.7
SONORA	**256**	**5.0**	**233**	**4.5**	**100,337**	**5.3**	**128,506**	**4.7**
Hermosillo	57	1.1	56	1.1	21,438	1.1	32,832	1.2
Nogales	95	1.8	86	1.7	27,808	1.5	41,793	1.5
기타 지역	104	2.0	91	1.8	51,091	2.7	53,881	2.0
TAMAULIPAS	**404**	**7.9**	**362**	**7.0**	**182,659**	**9.6**	**251,151**	**9.2**
Matamoros	133	2.6	114	2.2	51,623	2.7	58,330	2.1
Nuevo Laredo	37	0.7	36	0.7	17,901	0.9	29,938	1.1
Reynosa	147	2.9	155	3.0	95,371	5.0	136,117	5.0
기타 지역	87	1.7	57	1.1	17,764	0.9	26,766	1.0
기타 주 합계	**2,021**	**39.3**	**2,117**	**40.8**	**726,143**	**38.2**	**1,034,171**	**37.7**
전국 합계	**5,140**	**100.0**	**5,191**	**100.0**	**1,902,121**	**100.0**	**2,743,522**	**100.0**

주: * Tijuana *municipio*는 Playas de Rosalito를 포함.

자료: Mexico INEGI, Programa de la IMMEX, 제조업체 통계(2007년 12월과 2021년 3월 자료).

가 가장 높은 11.6%의 제조업체수와 두 번째로 높은 9.4%의 종사자수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603개 IMMEX 제조업체에서 257,771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반면, 치와와주의 후아레스(Juárez)는 두 번째로 높은 6.3%의 제조업체수와 가장 높은 11%의 종사자수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327개 IMMEX 제조업체에서 301,314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군의 분포 차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후아레스의 제조업체들이 티화나보다 훨씬 고용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후아레스에 노동집약적 조립기업이 더 많이 분포한 반면, 티화나에는 기술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기업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493).

티화나(Tijuana)에는 NAFTA 발효 이후 많은 마킬라도라 기업이 들어섰는데, 현재도 약 570개의 마킬라도라 업체에서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City of San Diego 홈페이지). 외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티화나의 입지조건은 미국 롱비치(Long Beach) 항구와 멕시코 엔시나다(Ensenada) 항구가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해운에 유리하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약한 노동조합, 관리자들은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김학훈, 1999, p.29).

후아레스(Juárez)에는 약 330개 마킬라도라에서 255,000만 명이 일하고 있다(Bacon, 2015).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인 소유이며, 최대 규모 순위 15개 기업 중에서 8개는 미국인 소유이며, 3개는 대만계, 2개는 유럽계, 2개는 멕시코인 소유이다. 이 중 11개 기업은 전자제품을 만들며, 3개 기업은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생산한다. 한 기업(Lear)은 24,000명을 고용하며, 다른 한 기업(Delphi)은 1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15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전자장비 업종의 하청생산 공장이다.

표 8은 멕시코 북부 6개 접경주에 입지한 IMMEX 비제조업체들의 주(*estado*)별 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해서 2009년과 2021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2021년의 업체수에서는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에 가장 많은 210개(16.5%)가 분포하였으나, 종사자수에서는 134개 업체가 분포한 소노라(Sonora)주가 가장 많은 인원인 58,664명(16.9%)를 차지하였다. 이는 소노라주에 많은 인원을 고용한 대규모 농장이 비교적 많은 반면, 바하캘리포니아주는 창고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의 IMMEX 비제조업체 중에서 접경 5개주에 분포한 비율은 54.2%이며, 종사자수로는 43.5%를 차지하여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접경 6개주에 분포한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09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IMMEX 비제조업체의 접경 6개주의 비중이 2021년에 와서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산물이나 서비스업의 수출이 미국 의존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북부 접경 6개주 IMMEX 비제조업체수와 종사자수

주 명칭 (estado)	업체수				종사자수			
	2009년	%	2021년	%	2009년	%	2021년	%
BAJA CALIFORNIA	189	19.3	210	16.5	32,191	15.0	40,935	11.8
COAHUILA	38	3.9	52	4.1	10,673	5.0	11,258	3.2
CHIHUAHUA	66	6.7	102	8.0	12,711	5.9	12,722	3.7
NUEVO LEÓN	93	9.5	137	10.8	5,239	2.4	19,170	5.5
SONORA	126	12.9	134	10.5	27,153	12.7	58,664	16.9
TAMAULIPAS	63	6.4	54	4.2	15,662	7.3	8,637	2.5
기타 주 합계	404	41.3	582	45.8	110,942	51.7	196,279	56.5
전국 합계	979	100.0	1,271	100.0	214,571	100.0	347,665	100.0

자료: Mexico INEGI, Programa de la IMMEX, 제조업체 통계(2009년 12월과 2021년 3월 자료).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의 발달과 IMMEX 프로그램에 의한 수출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확대, 인구증가,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IMME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멕시코의 IMMEX 프로그램은 수출 기업들의 행정적 지원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제공하여 수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세가공을 통한 수출 활동이 주목적인 기존의 마킬라도라 기업들은 당연히 IMMEX 프로그램에 편입이 된다.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IMMEX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장비제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MEX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수와 해외매출액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IMMEX 제조업체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업체수로는 티화나에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종사자수로는 후아레스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북부 접경 6개주에는 전국 IMMEX 제조업체들의 약 60%가 입지하여 여전히 미국 시장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 및 서비스업종의 비제조업 수출기업들은 접경 6개주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고 멕시코 내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NAFTA 발효이후 북미 3국간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업(spatial division of labor)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즉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한 것이다. 연구개발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시설의 자동화 생산방식의 제조업까지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NAFTA를 대체하여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The U.S.-Mexico-Canada Agreement)가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멕시코 수출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는 수많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8]이 있지만, 멕시코의 북부 국경지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출가공지역이다(Dicken, 1992, p.184).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들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마킬라도라 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멕시코의 전통적인 산업지구인 멕시코시티(Mexico City),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테레이(Monterrey) 같은 대도시 중심의 산업공간구조에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구를 등장시켰다(김학훈, 1998, p.107). 비록 다국적기업의 단순조립 공장들이 대부분인 위성산업지구이지만, 고용 기회의 확대로 국경지대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멕시코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도 컸다. 마킬라도라는 특히 멕시코 접경주에 거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Silvers, 2004).

2000년대부터는 중국을 위시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저임금 경쟁으로 한때 침체의 길을 걸었으며, 2009년 출범한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 국가들에도 마킬라도라가 들어서서 저임금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2001년의 9・11 테러와 2008년의 금융위기 등 마킬라도라 산업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2010년대에는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해외

매출이 증가하여 마킬라도라 산업도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기 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마킬라도라 산업의 연계는 대부분 미국 내 모공장과 이루어지며 멕시코 내의 연계가 미흡한 것은 종속 개발(dependency development)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outh, 1990, pp.565-566). 마킬라도라는 멕시코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공장들이 멕시코의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멕시코 내륙지역을 여전히 낙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마킬라도라는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서 멕시코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세금 특혜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임금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마킬라도라 공장들이 멕시코 국내 기업과의 후방연계를 강화하도록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수출용 자동차 제조업은 부품산업과 연계효과를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은 다른 수출산업과 함께 다양한 외부 요인에 대처하면서 꾸준히 발전해나갈 것이다.

주

1) 외국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는 초기에 마킬라도라 자회사(분공장)를 설립할 준비가 안 되어있을 때, 멕시코인 소유의 공장에 원료와 부품을 공급해주고 임시로 조립생산을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shelter plan 또는 shelter program이라 하고, 그러한 임가공계약을 맡은 멕시코인 기업을 shelter company라 한다(Sklair, 1989, p.48).
2) 모공장(parent plant)은 주로 마킬라도라에서 운송되어온 중간재(반제품)를 추가로 가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포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분배관리도 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3) Programa de Importación Temporal para Producir Articulos de Exportación(수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임시 수입 프로그램)의 약자.
4)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수출 관련 제조업, 마킬라도라, 서비스 산업)의 약자.
5) Programas de Promoción Setorial(산업부문별 특혜 프로그램)의 약자.
6) 해외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의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reshoring)이라 하는 반면,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등지로 돌아와 입지하는 경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라 한다(Alixpartners, 2015).
7) 스페인어의 *municipio*는 영어의 municipality와는 달리 미국 행정구역에서는 county, 한국 행정구역에서는 군(郡)과 유사하다. *municipio*는 주(*estado*) 아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서, 한 개 이상의 시(*ciudad*)를 포함할 수 있다.
8) 1986년 당시 전 세계에서 확인된 수출가공지역(EPZ)은 총 116군데에 이르며, 한국에도 3곳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에 설치되었다(Dicken, 1992, pp.181-185).

참고문헌

김학훈, 1998,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pp.81-112.

김학훈, 1999, “멕시코 마낄라도라 산업의 특성: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 도시·지역개발연구 7, pp.21-37.

김희순, 2008, “멕시코 마낄라도라 산업의 특성과 분포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2), pp.251-2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멕시코 편람, 지역정보센터.

문남권, 2009, “멕시코 마낄라도라 산업 성장 동력에 관한 일고찰,” 중남미연구 28(1), pp.187-212.

박민경, 2016, 멕시코 제조업 경쟁력 분석과 활용 전략-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Global Strategy Report 16-006, KOTRA.

안정진, 2014a, NAFTA 20년,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코트라 뉴스.

안정진, 2014b, 멕시코에 진출하는 제조업체 필수, IMMEX에 대하여, 코트라 뉴스.

이전·백종국, 1997,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에 관한 고찰-NAFTA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2(2), pp.155-174.

임정훈, 2013, “마킬라도라 공장과 지역 멕시칸 납품업체 사이의 학습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2), pp.143-173.

임정훈, 2017, “불황기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의 사례,” 지역산업연구 40(1), pp.49-78.

임정훈, 2019,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멕시코 마킬라도라의 현황: 멕시코 IMMEX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8(4), pp.23-48.

조혜연, 2011, 멕시코, IMMEX 프로그램 개정, 코트라 뉴스.

한현희·김윤희, 2007,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 제도 -IMMEX/PROSEC의 이해, Global Business Report 07-013, KOTRA.

Alixpartners, 2015, “Managing the complexities in reshoring/nearshoring,” *Mexiconow* 76(May-June), pp.40-46.

Angulo, C., 2013, “Tax reform and its impact on maquiladora,” *Mexiconow* 67(May-June), pp.38-42.

Angulo, C., 2016, “Is the IMMEX (maquiladora) system coming to an end?” *Mexiconow* 83(July-August), pp.36-44.

Bacon, D., 2015, The Maquiladora Workers of Juárez Find Their Voice, *The Nation,* https://www.thenation.com/article/.

Blouet, B. W. and Blouet, O. M., 1993.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nd ed.), New York: Wiley and Sons.

Carrillo, J., 1989, “Calidad con consenso en las maquiladoras: ¿Asociación factible?” *Frontera Norte* 1(2), pp.105-132.

Dicken, P.,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2nd ed.), New York: Guilford.

Herzog, L. A., 1990, *Where North Meets South: Cities, Space, and Politics on the U.S.-Mexico Border,* Center for Mexica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opinak, K., 1996, *Desert Capitalism: Maquiladoras in North America's Western Industrial Corridor,*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Krooth, R., 1995, *Mexico, NAFTA, and the Hardships of Progress: Historical Patterns and Shifting Methods of Oppression,* London: McFarland.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1994, *Estadística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1989-1993*.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1997, *Estadística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1991-1996*.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2001, *Estadística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1995-2000*.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2007, *Industria Maquiladora de Exportación.*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2020, *Indicadores de Establecimientos Con Programa IMMEX, Diciembre de 2020.*

Pavlakovic, V. K. and Kim, H. H., 1990, “Outshopping by Maquila Employees: Implications for Arizona's Border Communities,” *Arizona Review* 38, pp.9-16.

Pavlakovich-Kochi, V., 2015, IMMEX-Mexico's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and Services, *Arizona's Economy*, Spring, https://www.azeconomy.org/2015/03/economy/.

Pavlakovich-Kochi, V., 2017, Arizona, Mexico, and North America's “Auto Alley”, *Arizona's Economy*, Spring, https://www.azeconomy.org/2017/03/border-economy/.

Silvers, A., 2004, Lower Income, Higher Income: Impacts of the *Maquiladora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Challenged Borderlands*, Edited by Pavlakovich-Kochi, V. *et al.* Aldershot, England: Ashgate, Chapter 8, pp.153-165.

Sklair, L., 1989, *Assembling for Development: The Maquila Industry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Unwin Hyman.

South, R. B., 1990, “Transnational Maquiladora Lo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0(4), pp.549-570.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1996, *US-Mexico Border XXI Program: Framework Document,* October, EPA 160-R-96-003.

최초투고일 2021년 06월 08일
수 정 일 2021년 06월 23일
최종접수일 2021년 06월 29일